



토레스는 즐거워 유로 2012 결승전이 끝난 키예프 올림피크 스타디움에서 우승팀 스페인의 공격수 토레스가 자신의 딸, 동료 선수들의 아이들과 함께 우승축하 꽃술을 가지고 놀고있다.

/연합뉴스

진화하는 제로톱 ... 스페인 축구는 너무나 강했다

결승서 이탈리아 4-0 꺾고 메이저 3연패

토레스 득점왕 ... 카시야스 A매치 100승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스페인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메이저 대회 3연패(유로2008 우승,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 유로 2012 우승) 전인미답의 위업을 달성한 선수들은 서로의 어깨를 짊어주고 춤을 추며 '챔피언' 노래를 함께 불렀다. 아들·딸들과 함께 그라운드에 나와 승리의 세리머니도 펼쳤다.

반면 이탈리아 선수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발로텔리는 경기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다. 피를로와 누첸티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고 보누치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내렸다.

빨간색의 스페인 관중석은 승리의 환성으로 들쭉날쭉했고 파란색의 이탈리아 관중석은 침묵했다. 승패의 잔인한 명암은 경기장을 그렇게 둘로 갈라놓았다.

스페인인 역시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2일(한국시각) 이탈리아와의 유로 2012 결승전에서 실바와 알바, 토레스, 마타의 연속골로 4-0 완승을 거두며 앙리틀로네컵을 들어 올렸다.

스페인 델 보스케 감독이 이번 결승전에서 꺼낸 카드는 제로톱, 이탈리아 프란켈리 감독은 발로텔리와 카사노 투입을 내세우고 포백으로 수비진을 구축했다.

스페인의 제로톱은 이전까지 '지루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 결승에서는 이니에스타와 사비의 활약 속에 역동적이고 막강한 파괴력을 과시했다.

전반 14분 일제강습 선제공격이 나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스페인 골의 시작점은 이니에스타였다. 이니에스타는 이탈리아 오른쪽 공간을 파고드는 파브레가스에 정확하게 킥패스를 연결해 줬고 파브레가스는 과감한 돌파로 수비수를 따돌린 뒤 짧은 크로스, 세

도하던 실바가 헤딩골로 마무리 지었다.

이탈리아는 선제골을 내준 뒤 공격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반 21분에 측면수비수 키엘리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빼먹거리기 시작했다. 점유율을 높여 나갔지만 공격의 창은 무뎠고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전반 40분 또다시 결정타를 맞았다. 이번엔 사비였다. 센터라인 안쪽에서 공을 잡은 사비는 10여m를 치고나온 뒤 빠르게 쇄도하던 알바에게 정확하게 배달, 2번째 골을 만들었다.

후반 들어 이탈리아는 디나탈레와 모타를 투입해 공격에 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모타가 교체 5분 만에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장을 떠나자 승부는 사실상 끝났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0-2로 뒤진 상황에서 10-11의 수적 열세에 몰리자 전의를 잃고 경기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듯 무기력한 경기를 하며 스스로 무너졌다.

스페인은 후반 38분 교체로 들어간 토레스가 한 골, 42분에도 교체로 들어간 마타가 추가골을 성공시켜 4-0으로 대승했다.

스페인의 토레스는 3골 1도움으로 득점왕에 등극했다. 토레스는 독일의 고메즈, 러시아 자코예프, 크로아티아 만주키치, 이탈리아 발로텔리, 포르투갈 호날두와 같은 3골을 기록했지만 도움을 1개 추가해 고메즈와 동일한 득점 포인트에서 출전 시간이 짧아 득점왕의 영예를 안았다.

주장 카시야스는 개인 통산 A매치 100승을 유로 2012 결승전에서 올리는 기쁨을 누렸고 유로 본선 509분 무실점 기록까지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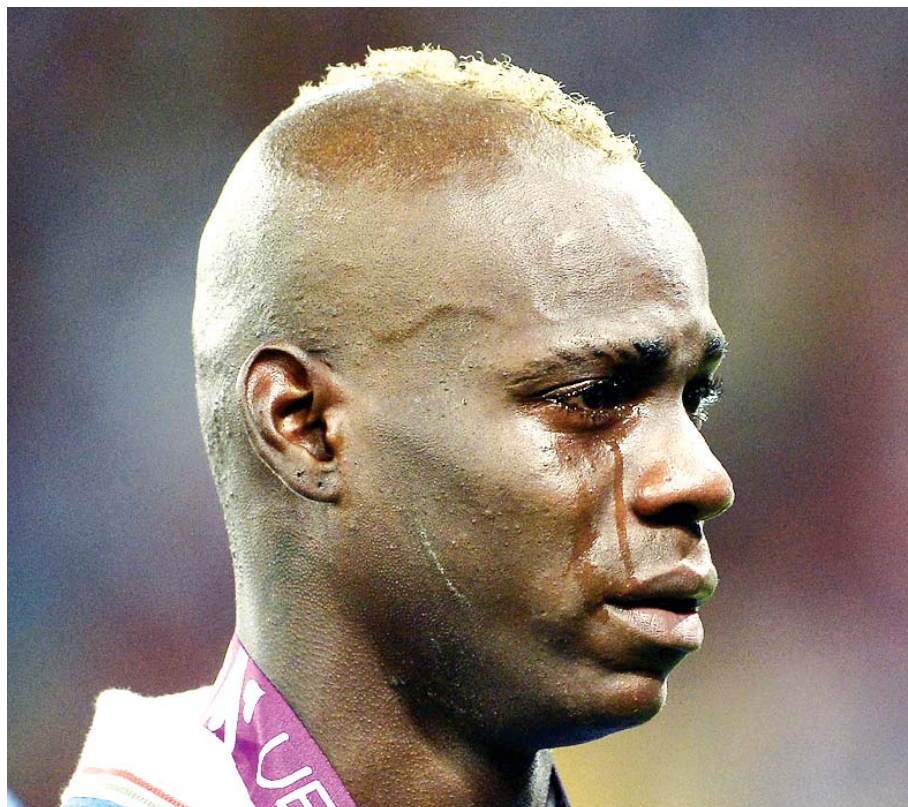
승장 델 보스케 스페인 감독은 "선제골이 이탈리아에 타격을 줬고, 두 번째 골은 결정적이었다"라고 이번 경기를 평가하고 제로톱 전술에 대해 "최선이라고 생각한 전술을 택했을 뿐이다. 내가 더 한 일은 없다"라며 선수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유제관기자 jkyou@kwangju.co.kr



스페인의 환호 유로 2012 우승팀 스페인의 선수들이 우승컵인 '앙리 틀로네'를 높이 치켜들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의 눈물 '그라운드의 악동' 이탈리아의 공격수 발로텔리가 준우승 메달을 받은후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니에스타 MVP '최고의 별'

스페인의 게임메이커 이니에스타가 유로 2012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며 최고의 별임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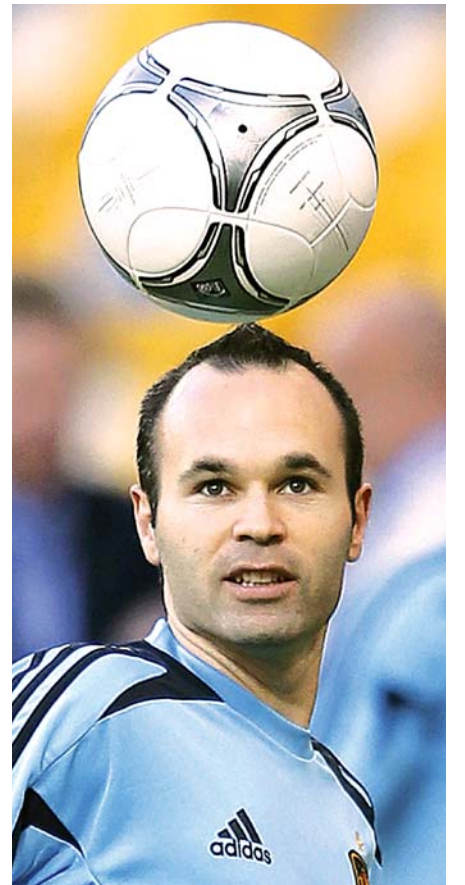
결승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 MVP에 선정된 이니에스타는 대회 기간 동안 두 번씩이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등 빼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이니에스타는 이날 결승전에서도 전반 14분 날카로운 패스를 파브레가스에 연결해 실바가 첫 골을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승전을 앞두고 유력한 MVP 후보로 거론된 이니에스타는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인정을 받는 일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최우수 선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MVP 보다는)우승 트로피"라고 밝혔다.

이니에스타는 170cm 키에 몸무게 65kg. 왜소한 체구지만 몸싸움에 강하고 상대 수비 4~5명은 거뜬히 제칠 만큼 돌파력이 좋다.

이번 대회에서 넓은 시야와 영리한 지능, 뛰어난 볼 컨트롤, 현란한 패싱 능력을 보여 주며 수많은 찬스를 만들어 스페인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동료 사비는 이니에스타를 가리켜 "스페인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라는 찬사를 보냈고, 델 보스케 감독도 "완전무결한 축구선수다.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된다.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직접 골을 넣을 수도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제관기자 jkyou@kwangju.co.kr

'무적 함대' 브라질 월드컵도 정복할까

스페인 축구의 전성시대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로 굳어졌다.

스페인은 유로2008과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을 포함해 전인미답의 메이저 대회 3연패를 이뤘다. 이로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다시 검증받을 때까지 무려 6년 동안 세계 축구를 호령하게 됐다.

유로2012에 출전한 스페인 대표팀은 2010 월드컵 멤버들이 고스란히 포진했다. 이 대표팀은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단을 넘어 세계 축구사에도 기록될 라인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축구 지도자들은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있다. 클럽과 대표팀도 이들의 개인·팀 전술을 교과서로 삼아 차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유로2008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수십년 동안 메이저대회 타이틀이 없던 스페인은 전원이 수비와 공격에 가담하는 '토틸 사커'를 재해석하면서 괴력을 내기 시작했다. 토틸사커의 중심으로 활약한 네덜란드 축구영웅 요한 크루이프는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지휘봉을 잡았다. 바르셀로나에서 고도로 훈련된 선수들은 고스란히 스페인 국가대표로 이식돼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토틸사커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 축구는 '공은 사람보다 빠르다'는 단순한 원리를 철칙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개인기와 긴 드리블보다는 패스와 짧은 드리블에 치중해 볼의 점유율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전술이 완성됐다. 스페인 라인업을 보면 사비, 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이상 바르셀로나), 알론소(레알 마드리드) 등 패스의 달인이 즐비하다.

축구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정밀하고 실리적인 축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도 가장 선진화된 전술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델 보스케 감독은 "스페인은 최근 몇 년간 최고의 시기를 보냈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며 스페인 축구의 전성시대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숫자로 본 스페인의 유로 2012 우승

▲1 = 스페인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2연패 달성에 성공했다.

▲2 = 스페인의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은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월드컵을 동시에 우승한 두 번째 사람이다.

▲3 = 독일과 스페인의 유럽축구선수권대회 통산 우승 횟수.

▲4 = 스페인이 이번 대회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0으로 꺾고 4골 차로 이긴 것은 역대 유럽선수권대회 사상 최다 골 차다. 스페

인이 얻은 4골은 결승전에서 한 팀이 거둔 최다 득점이기도 하다.

▲5 = 전반 14분 만에 결승골을 넣은 실바는 총 2골 3도움을 달성, 이번 대회 최다 공격포인트의 주인공이 됐다.

▲12 = 스페인은 최근 12경기 연속으로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본선 무대에서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100 = 스페인의 골키퍼 카시야스는 이번 결승전 승리로 개인 통산 A매치 100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